



# 가나안 이야기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 「가나안 이야기」

다비드 • 하다스 • 타미 • 다나 • 토하

shalom! 세종시에서 문안드립니다. 참 오랜만에 소식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한동안 소식 전하지 못하게 됨을 너그려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한국에서의 안식년을 충분한 쉼과 회복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피로도 없고 몸 컨디션도 좋는데 나에게는 안식년이 필요할까? 생각했었는데 막상 쉬다보니 왜 쉼이 필요한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지도 이제 9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식년으로 1년을 계획하고 왔으니 이제 3개월 남았네요. 처음에는 언제 1년이 지나갈까 싶었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저희들에게 한국이 참 편하고 좋은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이스라엘에 더 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시점에서 지난 시간 저희들 어떻게 보냈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될지 간단하게 소식 전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

안식년 기간에 허락된 최고의 선물, 우리 집 넷째( '다운' )가 이제 얼마 있으면 태어나게 됩니다. 예정일은 12월 7일인데 넷째이다 보니 예정일보다 다소 먼저 태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회보다 단아가, 단아보다는 도하가 조금씩 빨리 태어났거든요..., 이번에도 저희들은 집에서 출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을 도와주실 산파를 찾았습니다. 처음도 아니라 그리 생소할 것은 없지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로 한 산파가 강원도 양양에 살고 계십니다.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면 연락드리기로 했고 그때 강원도에서 세종으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제시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은 '홈스쿨링'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고 또 곁에서 도울 수 있다는 게 참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반면 경험도 없고 부족한 부분도 많아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 잘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저희들도 과정에서 비록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와 마음가짐 그리고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 한국에서 보내는 안식년과 사역

참 감사한 것은 충분한 쉼과 회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동일하게 이곳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식년을 맞아 후원교회들과 사람들을 만나 현장 사역을 나누고 또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또 때로는 교회와 목장에서 각종 예배와 모임 그리고 집회를 통해 말씀으로 도전하고 또 현장으로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현장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얼마나 위로 받고 격려 받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난번에 기도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2기 사역을 위한 종교비자 진행은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습니다. 올해 가을에 현장에 있는 IM\* 관계자를 초청과 이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으나 IM\* 측과의 스케줄이 맞지 않아 다음에 다시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학생비자를 통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준비(학교등록과 학생비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에 일이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가능성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IM\* 측과의 협력과 다비드가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 요압 아저씨 가정과 베두인 마을 사역 이야기

매년 이때마다 되면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성탄절 선물 상자가 몇몇 교회들과 기관으로부터 전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현장에 없으니 어떻게 모르겠네요...^^ 해서 이 시점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저희가 이스라엘에 있는 지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유대인으로서 유대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요압 아저씨 가정, 그리고 무슬림으로서 이슬람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두인 아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작은 선물들을 보내려 합니다. 선물을 통해 전해지는 복된 소식과 따뜻한 정성이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훈훈함으로 채워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혹시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11월 말까지 연락주시면 필요한 선물 목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이스라엘로 준비된 소포를 보내려 합니다.

끝까지 읽고 또 기도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화 이글스 구장에서



이 아이가 곧 태어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홈스쿨 패밀리



원없이 먹어보는 한국음식들



이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을...

「 기도제목 」

“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1:21)

1. 아내(하다스)의 출산(예정일: 12월 7일)과 태중 아이의 건강을 위해
2. 안식년 마무리와 2기 사역 준비를 위해(학생비자와 등록금(750만원), 초기정착금 마련을 위해
3. 베두인 마을 아이들이 배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4. 요압 아저씨 가정과 이브라힘 가정의 가족 구원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5.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분쟁과 다툼이 멈추고 그 땅에 진정한 살롬(평안)이 찾아오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연락처 」
<div>■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타미,다나,토하)</div> <div>■ 외환은행: 181-04-01159-983</div> <div>■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div> <div>■ 목적헌금: 타마르 프로젝트</div> <div>■ 외환은행: 990-007955-919</div> <div>■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div> <div>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div> <div>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div>	<div>※ 주 소 : 세종시 금남면 용포2길 70, 두진리버빌 아파트 102동 1009호 (안식년 기간에 머물게 될 안식관 주소입니다.)</div> <div>※ 연락처 : ■ 휴대폰: +82-(0)10-9523-0432 (정재석)</div> <div>■ 집전화 : 070-8632-0432</div> <div>■ E-MAIL: jaesuk96@gmail.com</div>